

In brief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February 2018

IASB 의 IAS 19 개정 발표 – 개정, 축소, 정산

Issue

2018년 2월 7일 IASB는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 19 'Employee Benefits'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한다.
-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Impact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IAS 19에 따라 개정 시점 현재의 가정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개정 전과 후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산정한다.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통상 기초의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한다면 잔여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재측정에서 사용한 가정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여야 한다. 해당 개정에 따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기간에 인식될 손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보다 빈번히 재측정할 수 있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따라 초과적립액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자산인식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은 IAS 19에 따라 계산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8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나 정산을 통해 사실상 초과적립액이 기업에 환급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Who is affected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과거근무원거나 정산손익을 인식한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